

제6절 방울리(芳栗里)[속명 : 감율(甘栗)]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정명리(正明里) 곰실과 인접(隣接)하고, 서쪽은 이평2리(梨坪二里)와 닿아있으며 남쪽은 모천(某川), 북쪽은 삼산리(三山里)와 문장봉(文章峯)이 있다. 마을회관은 2010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마을 입구 울진지역의 동학 접주인 전의철 접장을 기리는 비가 서 있으며 동학과 연관된 유적과 전설이 다수 전해진다.

2. 마을의 역사

정선(旌善)전씨가 개척한 것으로 전해지며 옥면망월형(玉兔望月形)으로 인식되면서 마을 이름을 월야(月夜)라 불렀다. 앞산(山)을 문장대(文章臺)라 하고, 그 봉우리를 문장봉(文章峯)이라 하였다. 그 후 마을 주위에 밤나무가 많고 밤의 질(質)이 좋았으므로 감율(甘栗)로 개칭(改稱)하였다. 감율(甘栗), 방비(芳菲), 호전(虎田), 사전(沙田) 등 4개의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3. 가구 분포

총 42세대가 거주하며 전의 이씨(全義李氏), 안성 이씨(安城李氏), 평해 황씨(平海黃氏), 김해 김씨(金海金氏) 등이 분포하고 있다.

제7절 봉산1리(峰山一里)[속명 : 봉수(烽燧)]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동해(東海)에 접(接)하고, 서쪽은 뒷산으로 봉수산(峰燧山)이 솟아있으며, 남쪽은 봉산2리와 인접(隣接)하고, 북쪽은 정명천(正明川)이 동해로 흐르는 하류(下流)로 기성리와 접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92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2. 마을의 역사

1630년경에 오씨(吳氏)라는 선비가 개척하였다고 전하며 봉수대가 있었다 하여 봉수(烽燧)라 하였다. 조선 때는 평해군(平海郡) 근북면(近北面)에 속해 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烽山里)에 속하였다. 항곡과 추난계의 2개 자연 마을이 있다.

3. 가구 분포

총 86세대가 거주하며 김해 김씨(金海金氏), 안동 권씨(安東權氏), 김녕 김씨(金寧金氏), 순흥 안씨(順興安氏) 등이 세거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봉수대(烽燧臺)

봉산리 마을 뒷산 봉우리에 남아있는 조선시대 봉수지로 ‘표산봉수대(表山烽燧臺)’라고 부른다. 표산봉수대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자연 지형을 그대로 이용해 조성했으며 구릉의 정상부에 평지작업을 하고 타원형 토축 기반부를 설치한 후 그 위에 방형의 석축 연대를 조성했다. 현재 남아있는 봉수대의 규모는 하단부 29.6m, 너비 21.6m, 높이 2m이다. 표산봉수대는 울진지역에 잔존하는 다른 봉수대에 비해 기반부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⁴

제8절 봉산2리(峰山二里)[속명 : 갈마(歇馬)]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으로 동해(東海)가 있고, 서쪽은 마을 뒷산인 갈마등(嶺)을 넘어 황보2리가 있으며, 남쪽은 구산1리(邱山一里)와 인접(隣接)하고, 해안(海岸)의 암벽(岩壁)이 절경(絶景)을 이루고 있다. 북쪽은 봉산1리(峰山一里)와 연접(連接)하여 있다. 마을회관은 2014년도에 새로 건

4. 울진군·안동대학교박물관, 『울진군 봉수대 지표조사보고서』, 2006